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하 은 호* · 이 영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84.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이 안정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생명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초기에는 신체적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두었으나 Rowe와 Kahn (1997)은 질병이나 장애의 부재, 높은 인지 수준과 신체기능, 적극적인 삶의 영위를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하여 단편적 접근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후 지혜와 회복력을 구성 요소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Rowe & Kahn, 2000). 그 밖에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혜, 건강, 경제

적 안정, 활동적인 삶, 참살이(well-being) 등을 성공적 노화를 위한 공통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Kelly & Lazarus, 2015). 특히 성공적 노화의 본보기 대상이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일 경우 노화에 대해 더욱 긍정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pp, Jung, Damarin, Mirpuri, & Spini, 2017).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외 없이 노화를 경험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제반 현상은 개개인이 인식하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관점의 인식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미래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모든 연령층이 지향하는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Lee & Chang, 2013).

생의 주기에서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아래 성장·발달해 온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Moon, 2018). 최근 대학생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ymlee@cup.ac.kr)

• Received: 17 February 2020 • Revised: 22 April 2020 • Accepted: 12 June 202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Young Mi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74 Oryundae-ro, Geumjeong-gu, Busan, Korea

Tel: 82-51-510-0833, Fax: 82-51-510-0838, E-mail: ymlee@cup.ac.kr

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며 부모 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성인기 이행의 장기화, 사회로의 취업시기 지연 및 그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등을 야기하여 향후 급증하는 젊은 세대의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Kim & Lee, 2019). 청년층은 이삼십 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Kim, 2009), 실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그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는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Kang & Ha, 2013)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노년의 삶을 위한 대비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Kelly & Lazarus, 2015) 이런 의미에서 노후준비의 출발점에 선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생 시기에서의 질병 이환율은 중·장년기에 비해 낮아 자신의 건강을 과신할 수 있고, 건강행위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잘못된 인식은 불건전한 생활습관의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젊은 연령에서의 잘못된 건강습관이나 재정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비만이나 흡연의 결과로 이어지고 성인에서의 질병상태를 가져와 결국 성공적 노화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Schafer & Ferraro, 2012).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신체활동량과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Moon, 2018).

노후준비는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노후준비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의 주관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 삶의 질, 저축, 가족 부양, 정서적 준비 등 통합적 준비를 지향하고 있는 유형, 현재를 잘 보내면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유형, 본인 스스로 주도적 노후준비를 대비하고자 하는 유형, 경제적 준비를 가장 중요시 하는 유형 등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는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계획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상당수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년층 대상의 연구가 일부에서 수행되었으나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관련 최근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는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생활해 왔으므로 세대 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는 성공적 노화에 있어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이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

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등을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모바일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73명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였다. Chu, Tak과 Kim (2018)의 연구를 근거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10개로 설정하여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 118명으로 제시되었으나 설문지 탈락률과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의 20% 이상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연구 참여 답례품을 수령하기로 홍보하였는바, 표본수의 20% 이상만 추가 선정 시 답례품 제공에 대한 차별 등 논란의 우려가 있어 설문 응답자 273명의 자료를 모두 채택하기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대상자의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Jang (2017)의 선행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30문항 3개 영역(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인의 전문가 집단(성인간호학 교수 1인, 노인간호학 교수 2인)에 의해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J대학교 SRC (Students Research Colloquium) 대학생 동아리회원들에게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중복되는 의미와 모호한 용어는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재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신뢰도는 Jang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측정되었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Han (2009)이 선행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경제적 준비 9문항, 신체적 준비 10문항, 심리·정서적 준비 9문항, 여가 준비 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상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경제적 준비 8문항, 신체적 준비 10문항, 심리·정서적 7문항, 여가 준비를 사회적 준비로 수정한 8문항의 총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J대학교 SRC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복되는 의미와 모호한 용어는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재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Han (2009)의 연구에서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측정되었다.

3) 성공적인 노화인식

성공적인 노화인식이란 '잘 늙어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각적 측면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In & Kim, 2015)이며, 측정도구는 Paik과 Choi (2005)가 개발하고 In과 Kim (20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4개 영역(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의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In과 Kim (2015)은 6개 영역(개인성장, 건강과 경제, 의미추구, 가족의 안녕, 중용, 타인의 인정)의 33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연구대상자가 노인이었고 In과 Kim (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중년층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학생들에게 알맞은 용어와 표현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타인의 인정'을 '과시성'으로 수정하여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 전에 J대학교 SRC 대학생

동아리회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총 33개 문항 6개 영역(건강과 경제 7문항, 과시성 4문항, 의미추구 5문항, 중용 3문항, 가족의 안녕 4문항, 개인 성장 1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ik과 Choi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82, In과 Kim (2015)의 연구에서는 .78,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1044297-HR-201908-003-03)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J대학교 연구동아리 SRC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을 이용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업로드 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문항이 누락 되면 다음 문항에 응답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 누락 문항이 없도록 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대상자의 익명성, 설문 도중 철회의 자유 등을 포함하였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을 저자가 속해 있는 대학으로 선정 후 응답자가 타지역의 대학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비확률적 표본추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7개 도시의 10개 대학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 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62명(59.3%)으로 남학생 111명(40.7%)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21세가 225명(82.4%)으로 22세 이상 48명(17.6%)보다 많았다. 학년은 1-2학년이 173명(63.4%)으로 3-4학년 100명(36.6%)보다 많았으며, 전공은 의료보건계열이 139명(50.9%)으로, 기타 계열 134명(49.1%)보다 많았다. 현재 건강은 131명(48.0%)이 '보통'으로, 114명(41.8%)이 ' 좋음', 28명(10.3%)이 '나쁨' 순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은 216명(79.1%)이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운동은 '안함'으로 응답한 121명(44.3%)이 '불규칙적인 운동' 114명(41.8%), '규칙적인 운동' 38명(13.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64명(60.1%)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 109명(39.9%)보다 높아, 과반수 이상이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정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3.63점(± 0.63), 노후준비 3.75점(± 0.64), 성공적인 노화인식 4.15점(± 0.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

Table 1.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C			PFOA			AOSA		
			M(SD)	t/ F	p	M(SD)	t/ F	p	M(SD)	t/ F	p
Gender	Male	111(40.7)	76.46(11.74)	4.04	<.001	125.20(18.73)	0.73	.469	135.02(16.16)	-1.86	.063
	Female	162(59.3)	70.26(12.91)			123.29(23.11)			138.64(15.45)		
Age (yrs)	20-21	225(82.4)	73.20(12.66)	1.15	.250	123.34(21.35)	-1.22	.225	136.14(15.66)	-2.34	.020
	>22	48(17.6)	70.85(13.36)			127.47(21.65)			141.97(15.80)		
Grade	1-2 year	173(63.4)	74.20(12.76)	2.42	.016	124.54(20.35)	0.48	.632	136.36(15.50)	-1.11	.268
	3-4 year	100(36.6)	70.34(12.54)			123.25(23.25)			138.57(16.32)		
Major	Medical	139(50.9)	73.48(12.35)	0.92	.357	125.14(21.52)	0.84	.400	139.99(14.25)	3.05	.003
	Others	134(49.1)	72.05(13.25)			122.95(21.35)			134.24(16.84)		
Present Health*	Gooda	114(41.8)	79.39(11.12)	39.01	<.001	127.87(19.69)	3.69	.026	137.88(15.25)	0.20	.820
	Averageb	131(48.0)	69.44(11.61)		a)b>c	122.14(22.66)		a)b>c	136.67(16.65)		
	Badc	28(10.3)	61.53(10.60)			117.57(20.16)			136.57(14.36)		
Present illness	Yes	57(20.9)	66.63(11.41)	-4.21	<.001	119.12(22.16)	-1.97	.050	136.57(17.35)	-0.32	.751
	No	216(79.1)	74.41(12.67)			125.37(21.08)			137.32(15.42)		
Exercise*	Regular	38(13.9)	78.92(11.70)	11.62	<.001	129.81(19.85)	3.34	.037	138.13(16.81)	0.10	.902
	Irregular	114(41.8)	74.70(12.38)		a)b>c	125.78(20.66)		a)b>c	136.78(16.82)		
Leisure	No	121(44.3)	69.05(12.45)			120.64(22.18)			137.23(14.58)		
	Yes	164(60.1)	75.53(12.25)	4.51	<.001	126.25(21.71)	2.09	.038	137.45(16.24)	0.37	.715
	No	109(39.9)	68.65(12.53)			120.77(20.65)			136.74(15.20)		

HC=Health condition; AOSA=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PFOA=Preparation for old age

상태는 성별($t=4.04, p<.001$), 학년($t=2.42, p=.016$), 현재 건강($F=39.01, p<.001$), 현재 질병유무($t=-4.21, p<.001$), 운동($F=11.62, p<.001$), 여가활동($t=4.51, p<.001$)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1-2학년,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과 운동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이 불규칙하거나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현재 건강($F=3.69, p=.026$), 현재 질병유무($t=-1.97, p=.050$), 운동($F=3.34, p=.037$), 여가활동($t=2.09, p=.038$)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과 운동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이 불규칙하거나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연령($t=-2.34, p=.020$), 전공($t=3.05, p=.003$)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2세 이상 집단, 기타 전공계열보다 의료보건계열 전공집단이 성공

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4.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는 노후준비($r=.23, p<.001$), 성공적인 노화인식($r=.17, p=.005$)과,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인식($r=.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5.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정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투입된 변수는 단변량분석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 등을 1차적으로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유의

Table 2. Level of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N=273)

Variables	Range	M±SD
Health condition	1~5	3.63±0.63
Physical		3.89±0.57
Emotional		3.24±0.79
Spiritual		3.76±0.81
Preparation for old age	1~5	3.75±0.64
Economic preparation		3.57±0.85
Physical preparation		3.76±0.87
Psycho-emotional preparation		3.95±0.64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1~5	4.15±0.47
Health and economy		4.39±0.60
Pursuit of meaning		4.20±0.59
Ostentation		3.27±0.90
Moderation		3.84±0.70
Personal growth		4.25±0.59
Familial wellness		4.54±0.68

M±SD=Mean standard deviation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순으로 변수를 입력하였다. Durbin-Watson은 1.990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1.066으로 10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4~.99로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을 투입시킨 Model I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47, p=.002$) 모형의 설명력은 4%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전공($\beta=.16, p=.007$)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추가 투입시킨 Model I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7.2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7%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beta=-.13, p=.033$), 전공($\beta=.15, p=.012$), 건강상태($\beta=.17, p=.004$)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추가로 투입시킨 Model II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2.1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Model II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전공($\beta=.14, p=.007$), 건강상태($\beta=.13, p=.028$), 노후준비($\beta=.52, p<.001$)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 순이었고, Model III는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변량을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among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Variables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r (ρ)	r (ρ)	r (ρ)
Health condition	1	.23 ($<.001$)	.17 ($<.005$)
Preparation for old age		1	.54 ($<.001$)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University Students

Predictor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S.E.	β (ρ)	B	S.E.	β (ρ)	B	S.E.	β (ρ)
Constant	138.44	2.59		123.71	5.68		85.92	6.17	
Age	-4.72	2.50	-.11 (.060)	-5.29	2.47	-.13 (.033)	-3.46	2.13	-.08 (.105)
Major	5.16	1.90	.16 (.007)	4.78	1.88	.15 (.012)	4.39	1.61	.14 (.007)
Health condition				0.21	.07	.17 (.004)	0.18	0.69	.13 (.028)
Preparation for old age							0.38	0.04	.52 ($<.001$)
R ²	.05			.08			.32		
Adjusted R ²	.04			.07			.31		
F (ρ)	6.47(.002)			7.24($<.001$)			32.17($<.001$)		
Durbin-Watson							1.990		

S.E.=Standard error

VI. 논 의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생의 후반이 쇠락과 의존의 삶이기보다는 길어지는 노년의 시기를 지혜와 경험이 충만한 자립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 시기부터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로의 근접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세대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요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평균점수는 5점 기준에 3.63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3.42점(Hong, 2013),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5점 기준의 환산점수가 3.58점(Park & Kim, 2013)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를 달리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증증 질환이 없고 정신과적 진단 경험이 없는 65-75세 이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3.10점(Seo & Choi, 2019)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이 최적의 수준을 이루는 연령대임을 감안할 때 예견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위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Hong, 2013), 대학생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수준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Kim, 2014), 높은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낮은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관리, 대학의 건강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또는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생의 주기 중에서 대학생의 시기는 학업이나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Kim, 2014) 대학 내 건강관리센터 또는 보건실 간호사를 주축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노후준비 평균점수는 5점 기준에 3.75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는 아니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측정된 3.25점(Kang & Ha, 201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Kim과 Lee (2019)는 밀레니얼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 준비 지향형’, ‘올로(you only live once, YOLO) 라이프 지향형’, ‘주도적 준비 증시형’, ‘경제적 준비 우선형’, ‘현재 삶 증시형’으로 유형화 하였는데, 특히 ‘주도적 준비 증시형’의 경우 노후준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노후에 대한 설계와 대비를 하고 국가는 보충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노후준비의 주체가 개인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보에 대한 습득이 빠르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변화의 흐름을 쉽게 감지하므로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도 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중년 세대는 가족부양이나 직장생활 등 확대된 역할수행에 집중하게 되어 노후준비에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했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대학생의 노후준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합적 준비 지향형’의 대상자들은 주체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부지원과 교육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등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노후가 와 닿지 않고 막막함으로 인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설계 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공적인 노화인식 평균점수는 5점 기준으로 4.15점이었는데, 측정도구는 다르나 온라인대학에 재학 중인 40-50세의 장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23점(Kwon, 2015)으로 크지 않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변화를 연구한 Choi (2006)는 조부모와의 동거 또는 매일 접촉으로 친밀감이 높았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대학생일수록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노화과정 및 노인들이 삶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세대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비교과 교육과정, 동아리, 봉사활동, 지역 내 노인 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년층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노인세대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성별, 학년,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질병유무, 운동, 여가활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수준이 높고, 건강행위 지각이 긍정적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다는 결과(Hong, 2013; Moon, 20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하고(Park & Kim, 2013),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Hong, 2013)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2학년과 3-4학년의 두 집단으로 이분하였을 때 저학년인 1-2학년에서 건강상태가 좋았으나, Hong (2013)의 연구에서는 3학년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고, Han (2018)의 연구에서는 2학년의 건강증진행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Moon (2018)과 Park과 Kim (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으나, 대체로 저학년에서 건강상태가 좋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고학년 시기가 학업량이 증가하고 취업을 위한 제반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여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질병 유무, 운동, 여가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과 Ha (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연구대상자가 중년층이므로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점은 있지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활동 정도가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건강상태는 신체활동, 영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들과 상관성이 있으며(Hong, 2013), 좋

은 건강상태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노후 삶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Kwon, 2015), 노후준비에는 질병이 없고 운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활력 있는 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연령, 전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세보다 22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성공적인 노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을 분석한 연구(Lee, 2007)에서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다고 나타남바, 성공적인 노화의 하부영역에 따른 차이 또는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연령대의 편중 등에 의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전공과의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Choi, 2014)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건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 학생에 비해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높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미비로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우나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이 노인의 특성과 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수할 기회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고령화는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노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비의료보건계열 학생까지 모두 포함하는 노년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는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Kang & Ha,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성공적 노화, 자기효능감, 삶의 방식 등과 연결되어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의 노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Chae, 2019). 이를 위해 Chae (2019)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의 노력을 독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시기는 보다 이른 시기에 의식적으로 준비되어야 다가올 노후의 생활이 유쾌해질 수 있다고 하여 조기 노후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성공적인 노화를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래를 대처하

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부족하다(Kim & Lee, 2019).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생의 전반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전제되어야 하고(Ferrario, Freeman, Nellett, & Scheel, 2008), 부모와 조부모 세대와의 접촉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Choi, 2006), 핵가족화가 두드러진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교육적인 접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 등에 반영하거나,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제 노인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경험을 특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인식 관련 선행연구가 드물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어려우나 노화의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Lee & Chang, 2013),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불충분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Ferrario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의료 보건계열의 학생들이 기타 계열 학생들보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기타 계열 학생들은 건강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정보입수 방법으로 대중매체에 의한 전달이 많아(Park, Moon, & Oh, 2017) 건강정보 습득에는 비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errario 등(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노화에 적응하면서 만성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공적 노화를 강조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성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공적 노화의 효과적인 교육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체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건강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Ferrario et al., 2008; Kelly & Lazarus, 2015),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Kim, 2014), 성공적인 노화과정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보장할 수 있는 신체건강 유지에서 비롯된다고 한 연구(Dourado, de Oliveira, & Menezes, 2015)와 유사한 맥락이다. 대학생은 건강한 습관을 형

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생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노후의 평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으로는 '적극적인 활동', '준비된 삶', '자기 효능감'과 같은 요소들이 발견되나 일반 성인에서는 '일상의 순조로움', '안정된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 등 대학생과는 다른 요소가 도출된 바(Choi, 2014), 성공적 노화는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각 세대의 시각과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경험이 내재되어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인 대학생이 바라보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찾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일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력은 생의 특정 시점이 아닌 연속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성공적 노화인식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와 성공적인 노화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 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바일 설문에 참여한 일부 대학생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를 전체 대학생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공적 노화는 단편적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접근에 의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개념이므로 대학생이 갖

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에 대해 심층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시행한다면, 대학생의 노후준비 과정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ae, E. (2019). Meaning of preparation for old 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ey words of previous stud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5), 355-368.
<http://dx.doi.org/10.22143/HSS21.10.5.26>
- Choi, J. C. (2006). Image about old man and relation between awareness about successful aging which college students recognize. *Korean Journal of Care Work*, 2(2), 70-87.
- Choi, S. H. (2014). *Validation of implicit theory of successful aging for university student and adult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 Chu, H. S., Tak, Y. R., & Kim, S. H. (2018).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well-being in 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4), 454-464.
<https://doi.org/10.4040/jkan.2018.48.4.454>
- Dourado, M. B., de Oliveira, A. L. B., & Menezes, T. M. O. (2015). Perception of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on self-aging.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68(2), 252-257.
<http://dx.doi.org/10.1590/0034-7167.2015680213i>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Ferrario, C. G., Freeman, F. J., Nellett, G., & Scheel, J. (2008). Chang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about aging: An argument for the successful aging paradigm. *Educational Gerontology*, 34(1), 51-66.
<https://doi.org/10.1080/03601270701763969>
- Han, M. R.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nurses about the preparation and successful life for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Han, S. Y. (2018).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pplication of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781-801.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8.781>
- Hong, S.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78-86.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78>
- In, E. Y., & Kim, C. W. (2015). The effects of perceived successful aging of the lower-income middle-aged on preparation for later time of their l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4, 25-52.
<http://dx.doi.org/10.17997/SWRJ.44.1.2>
- Jang, E. J. (2017). *Effect of aging awareness and health of middle-aged and elderly persons on quality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any University. Daegu.
- Jopp, D. S., Jung, S., Damarin, A. K., Mirpuri, S., & Spini, D. (2017). Who Is your successful aging role model?.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2(2), 237-247.
<https://doi.org/10.1093/geronb/gbw138>
- Kang, S. O., & Ha, K. S. (2013). Rel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 Management*, 11(12), 121-144.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2.121>
- Kelly, G. A., & Lazarus, J. (2015).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tergenerational voices value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0(3) 233-247.
<https://doi.org/10.1177/0091415015591678>
- Kim, H. J., & Lee, Y. S. (2019). A study on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retirement preparation of millennial gener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46, 27-50.
- Kim, J. I. (2009). *About superannuation recognition of 20 youth layer resea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Seoul.
- Kim, W. (2014). The effect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n anxiety about ag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421-442.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Estimated future population*. Retrieved August 15, 2019,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Kwon, K. J. (2015). A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for middle-aged people. *Hallym Journal of Aging Studies*, 3(1), 1-15.
- Lee, C. S. (2007).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eing between adolescents and old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3), 85-107.
- Lee, W. J., & Chang, S. H. (2013). The perception of aging and self-description: Through research based-photo voice.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3(2), 25-46.
- Moon, J. E. (2018).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affecting physical-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31-39.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31>
- Paik, J. E., & Choi, H. K. (2005).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Korean elderly: The definition, types, and predicting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16.
- Park, J. Y., & Kim, N. H. (2013).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153-165.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1.153>
- Park, M. J., Moon, H. K., & Oh, D. N. (2017).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o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3), 554-566.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3.554>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https://doi.org/10.1093/geront/37.4.433>
- Rowe, J. W., & Kahn, R. L. (2000). Successful aging and disease prevention. *Advances In Renal Replacement Therapy*, 7(1), 70-77.
[https://doi.org/10.1016/S1073-4449\(00\)70008-2](https://doi.org/10.1016/S1073-4449(00)70008-2)
- Schafer, M. H., & Ferraro, K. F. (2012). Childhood misfortune as a threat to successful aging: Avoiding disease. *The Gerontologist*, 52(1), 111-120.
<https://doi.org/10.1093/geront/gnr071>
- Seo, Y. M. & Choi, W. H.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exercise by younger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1(3), 183-189.
<https://doi.org/10.17079/jkgn.2019.21.3.183>

ABSTRACT

Effect of Health Condi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 of University Students on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Ha, Eun 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Lee, Young Mi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 of current health condition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Methods:** Totally, 273 university students, based across several cities in South Korea, were enrolled for the stud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Statistics 23.0. **Results:** There were three typ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fo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university students. Its explanatory power of each model was adjusted R^2 of .04, .07, and .31 respectively. Major ($\beta=.14$, $p=.007$), health condition ($\beta=.13$, $p=.028$), preparation for old age ($\beta=.52$,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Conclusion:** Our study results indicate that for university students, diverse interventions to promote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must focus on improving the health condition and enhancing preparation for old age.

Key words : Aging, Health status, Students